

體制的變化·革新理論의 考察

— 文化的 側面에서 —

金 永 植

人類學이 學問의 性格을 形成하는 時期의 主된 關心은 文化的 發祥과 그 發達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때에 主로 使用되었던 概念은 進化論의 段階說¹⁾로서 人類文化的 發生과 그 發達過程을 說明하려고 하였다. 또 文化發生과 그 傳播에 對해서도 有利 또는 不利한 地域의 與件으로 說明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은 信賴로운 資料의 뒷받침의 缺如로 大部分이 主張으로 남을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點에도 不拘하고 이들은 人類發達에 對해서 가장 基本的인 두가지의 質問에 答하려고 했다. 그 質問이란 人類란 애초에 어떠한 存在였느냐? 그 存在에서 오늘과 같은 存在로 되기 까지 어떠한 過程을 밟았느냐? 이다. 이러한 疑問을 究明하는데 方法的인 非適切性和 事實的 資料의 不正確性으로 因하여 甚한 對立的 論爭을 이르게 잠정적인 踏步狀態를 자아 냈었다. 그러나 30余年이 지난뒤 이 論爭은 再燃되었으나 이번에는 더욱 說明力을 가진 考古學의 資料와 史學的 資料의 뒷받침을 가지고 나왔다. 비록 짧은 期間이나마 進化論의 接近과 傳播論의 接近의 人氣는 衰退하고, 새롭게 構造·機能의 接近이 得勢하였으나 文化的 變化現象에 對한 생각은 조금도 衰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變化現象의 究明에 有用한 概念的인 發展을 가져 왔다.

I

古典의 進化論者와 또 相當한 數의 傳播論者들은 文化成長에 巨視的 接近을 썼다. 그들은 文化一般의 進化에 關心을 갖었으나 特定文化에 對한 關心은 가지지 않았었다. 이들은 變化의 方向에 關心을 두었지 그 變化를 이르기게한 要因의 說明에 對한 關心은 別로 없었다. 이들은 文化變化에 對한 因果的 說明없이 文化的 發展經路를 밝히려려고 했다.

古典의 進化論者들은 文化的 進化를 單一系線的 過程을 밟는다고 믿었다. 即 文化는 모든 人類에 비슷한 始初를 가졌다고 하였고 이것은 人類의 精神의 同質性에 歸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슷한 시각에서 世界의 모든 곳에는 根源의으로 哈似한 일련의 普偏的인 段階를 通하여 發展했다고 하였다. 人間의 精神과 心理는 哈似하기 때문에 進化段階는 모든 人類에게 같다고 하였다. 이들이 分類한 人類社會의 發展段階²⁾를 살펴 보면 ① 原始的 段

(1) 金永植, “敎職의 變化 革新을 위한 理論的 考察과 그 定立을 위한 豫備的 研究(I), 敎育學研究, 14권 1호, 韓國敎育學會, 1976. 4월, pp. 1~12. 社會學的 側面에서의 進化論의 段階說 參照.

階, ② 野蠻의 段階, ③ 文明段階로 삼고 있으며, 婚姻段階를 ① 亂婚期, ② 群婚期, ③ 一妻多夫期, ④ 一夫多妻期, ⑤ 一夫一妻期로 分類하고 있다. 家族制度의 發展段階를 보면 ① 混婚期, ② 血族群婚期, ③ 母系部族期, ④ 夫系部族期, ⑤ 一夫一妻家族期로 區分하고 있다. 또 宗教도 三段階를 거쳐서 發展하였다는 것이다. 即 ① 物活論期, ② 多神論期, ③ 單神論期이다.

위의 이러한 接近은 方法의 不適切性和 그릇된 事實資料 때문에 衰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 主唱者들은 文化에 對한 科學的인 概念形成과 學問으로서의 文化學을 이르게 세우는데 功獻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理論들을 成立시키기 위한 努力이나 또는 拒否하기 위한 努力은 原始社會의 現場研究에 크게 功獻한 바 있다. 또한 先史時代의 史蹟證據를 通하여 只今까지 主張하여 오던 技術-一經濟的 發展段階는 과히 벗어 나지 않음을 證明하고 있다.

進化論은 애초에 主唱되었던 그러한 形態로는 여러가지 아래와 같은 뚜렷한 理由때문에 받아들여 드려 질수는 없다고 본다. 첫째로는 人類의 精神的 同質性이라는 疑心스러운 前提 위에서 이룩된 論理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前提를 뒷받침 할만한 事實的 根據가 무엇이 갖는 가? 萬若에 그러한 前提와 見解가 옳다라고 한다면 여러 人間集團들이 서로 다른 技術的 發展을 이룩하고 있음을 무엇으로서 說明할 수가 있을 것인가? 只今까지 主唱되어 온바 있는 所謂 發展段階說은 自然的이며 必然的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決定的 인 資料는 아직 갖 없다. 둘째로 進化論은 特定한 社會에 있어서의 發展段階에 關한 證據資料를 찾지 않았다는데 있다. 有意的으로 標集된 資料로서는 그 妥當性을 찾기가 어렵다. 相當한 量의 實證的 資料는 進化論者의 假說과는 相反되고 있다. 셋째로는 進化論은 革新을 分析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文化相互間이 완전히 떠러져서 고립이 되었다고 하여도 두 文化의 發展은 엇비슷하게 될것이라고 믿는데 있다. 또 革新의 普及이라는 重要한 事實을 無視하는데 있다. 넷째로는 이러한 發展(進化) 段階는 正確性이 결여되어 있으며 明白히 定義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古典的 傳播主義論者들은 人間의 創造能力은 甚히 制限되었다는 前提에서 出發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人間은 거의 無制限으로 남이 創造해 낸 것을 吸收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는 것도 前提로 하고 있다. 오직 極히 有利한 環境의 與件下에서 만이 文化發展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人間은 原初的인 文化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現在 우리가 보고 있는 호주의 原住民들의 文化와 類似하다고 하겠다. 傳播主義論者를 代表할 수 있는 Elliot Smith와 Perry³⁾에 依하면 보다 精巧한 文化로 發展하는데 安성 맞음인 有利한

(2) L.H. Morgan, *Ancient Society* (Orig. 1877), E. Leacock, ed. (New York: Meridian Books,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3) W. J. Perry, *The Children of the Sun* (London: Mathuen and Company, 1923). ; G.E. Smith, *In the Biginning: The Origin of Civilization* (New York: Morrow, 1928), pp. 20~32.

環境的 與件은 이집트에서 만이 찾아 볼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精巧한 文化는 이집트에서 始作이 되었고, 後에 世界로 傳播되어 나갔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를 求心點으로 하여 世界를 하나의 文化圈으로 보았다. 形態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哈似한 點이 있으면 비록 그 地域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여도 이집트文化에 歸因한다고 하였다.

傳播主義論者들의 發想은 單純하고도 매력적인데가 있기는 하나 主唱者들의 學術은 그들의 情熱을 뒤따를 수가 없었다. 傳播主義論의 支持者들은 흔히는 明哲한 頭腦의 所持者들이기는 하나 그들의 閃光의인 發想도 信賴로운 資料의 뒷받침이나 심세한 論據가 曄박했다. 이들의 方法이 지닌 基本的인 缺點이란 觀察이나 記錄된 事實에 터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即 理論이 먼저 形成되고 後에 事實은 그 理論의 틀에 맞으워 채워진다는데 있다. 變化過程에 있어서 傳播의 役割이란 否定할수 없을 만큼 重要하다. 傳播의 役割을 強調한 傳播主義學派는 進化論者들이 傳播自體를 대수롭지 않게 過少評價한 것을 是正해 주는데 그 功獻은 認定하나 方法論의 세련을 期할 必要가 있다. 形態의 比較는 흔히는 그 形態들이 갖는 機能을 考慮함이 없이 比較되었고, 特定한 特徵이 一定한 經路를 밟지 않고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나타 나는 일이라든지, 遊離될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의 一部分이 떨어져서 있는 것에 對한 說明力이 弱하다고 할수 있다. 傳播論者들은 傳播過程을 너무나 單純化시킨 缺點이 있다. 이들의 理論대로 한다면 文化創造는 한 곳에서 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받아들여 쓰게 되는 構想이 아닌가 하는 印象이 질다. 大部分의 文化들은 한 文化의 創造物을 기부받아 無批判的으로 吸收만 하는 存在가 된다는 것도 생각 할수가 있다. 이들이 傳播過程을 하나의 機械的인 過程으로 본다는데 基本的인 誤류가 있다. 그러나 進化主義論과 傳播主義論은 오늘에 와서도 살아 있다. 이들 두가지의 學派는 그 形態를 多小 修正하고, 온전화 하여졌고 그 制限點은 있으나 現代 人類學의 重要한 傾向으로 되고 있다.

進化와 傳播過程에 대한 最近의 研究傾向은 證據爲主와 體系的인 分析, 그리고 嚴正한 推理的 思考등으로 特徵지을 수가 있다. 例를 들면 進化理論은 Gordon Childe, Julian Steward, Leslie White 등에 依해서 보다 세련되고 修正된 形態로 發展시켜 왔다. 이들을 古典의 進化主義論者와 區別하기 위해서 本人들의 抗議에도 不拘하고 新進化主義論者로 불리워지고 있다.

Childe⁴⁾는 先史時代의 資料를 根據로 하여 文化의 進化를 四大期로 區分하고 있다. 即 古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青銅器時代, 鐵器時代이다. 이러한 各時代는 經濟 社會, 宗教, 藝術領域에서 뚜렷한 特徵을 남긴 技術革命으로 내세워 지고 있다. 人類의 發展을 原始人에서 野蠻人으로, 野蠻人에서 文明人으로 옮겨 왔다는 것을 더욱 說得力있는 資料로서 再 確認하였다. Childe⁵⁾는 對照的인 環境的 與件이 存在한다는 것을 認定하였으나 大體로 人

(4) Gordon V. Childe, *What Happened in History*(Harmondsworth, Middlex: penguin Books, 1942). ; Childe, "Archaeological Agesas Technological Stages," *J. of the Royal Anthrolopogical Institutes*, 1944, 74:1-19.

(5) Ibid.

類가 文明段階까지 오는 “段階”은 꼭 거치는 것으로 確信하였다. 그러나 그 時代의 主要革命의 產物로 나타난 文化的인 特色은 環境的 輿件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即 많은 社會가 文明이라는 目的을 達成하고 있으나 그 文明의 內容은 具體的으로는 다르다는 것이다.

Julian Steward⁶⁾의 多線進化理論은 理論樹立과 研究方法에 功獻한바 크다. 그는 文化的發展에 對한 普偏的이고 綜合的인 理論을 展開시키기 보다는 文化發展의 順序가 같은 順序로 다른 獨立된 文化에서도 일어 나는가를 밝히려고 했다. 同時에 그는 서로 다른 文化地域에 있는 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形態, 機能, 過程들의 恒常性 여부를 가려내는 方法을 開發하려고 努力하였다. 그는 五個의 서로 다른 文化地域, 即 페루, 中央아메리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中國에서 나온 資料를 根據로 해서 위의 各文化地域의 文化發展은 뚜렷이 區分되는 다섯 時期로 나눌수가 있다고 하였다. 即 ① 農業以前期, ② 農業初期, ③ 部族文化와 基本技術形成期, ④ 地域發展期, ⑤ 周期的 征服期이다.

Steward⁷⁾는 이러한 “期”를 世界進化論的 發想에서의 “段階”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이 “期”는 世界文明의 早期中心地域에만 適用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다른 文化形態의 存在를 認定하였다. 即 사막지대, 남북극지대, 草原地帶, 樹木地帶에는 食生活의 形態, 定着形態, 社會構造形態, 宗教形態등의 機能的 相互間係로 말미아마 特有한 文化形態로 發展한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White⁸⁾는 文化的 發展을 人間에 依한 “에네르기”의 進步的인 活用度에 따라 說明하려고 試圖하였다. 그의 有名한 文化發展理論이란 “……文化는 年間1人當 쓰여지는 에네르기의 量이 增加할 때에 發展한다. 또는 이러한 에네르기를 活用할수 있는 科學技術的 手段의 効能이 增加할 때에, 또는 위의 두가지의 要因이 同時에 增加되었을 때에 文化發展이 이룩된다”라고 하고 있다. 人類가 主로 그의 筋肉의 에네르기에 依存할 때에는 原始人期에 있다고 했다. 文化的 各進化段階는 에네르기의 活用과 그 支配度의 增加로서 特徵지워 진다고 하였다. 이 點에 있어서는 Morgan⁹⁾의 理論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겠다. 新石器時代의 革命은 植物栽培와 野生動物의 家畜化를 通하여 太陽과 動物의 에네르기를 利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 났다는 것이다. 에네르기의 浪費를 줄이고 에네르기의 適用度를 增加시킴으로서 사람은 더욱 能率的인 道具를 얻게 되었고, 原始人들의 生活樣式은 크게 바뀌어 野蠻人期에 접어 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은 계속되어 靑銅器時代와 鐵器時代는 新石器時代 부터 始作된 發展過程의 延長이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期를 거처서 都市革命期에 접

(6) Julian Steward, *The Theory of Cultural Change: The Methodology of multilineal Evolu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5).

(7) J. Steward, “Cultural Evolution,” *Scientific American*, 1959, 194:69-80.

(8) Leslie A. White, *The Evolution of Cultur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59), and L. White, *The Science of Culture* (New York: Farror, 1949).

(9) L. H. Morgan, *Ancient Society*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어 든다는 것이다. 다음의 중요한 계속된 發展過程의 연결이 되어 준 것은 産業革命을 可能케 한 증기기관의 등장인 것이다. 人類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征服하고 人類의 目的을 위해서 더욱더 그 利用을 넓혀 감에 따라 社會는 계속 變化하고 發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傳播主義論者의 接近方法은 文化와 社會變化의 研究에 希望的인 길을 터 주고 있다.

獨逸과 오지리 그리고 美國의 文化史學派들은 비록 그들 自身의 傳播主義者들이긴 하지만 古典的 傳播主義者들의 文化의 起源과 그 傳播에 對한 理論들을 버리고, 文化와 社會의 變容을 資料의 根據에 依하여 說明하려고 하였다.

Wilhelm Schmidt¹⁰⁾와 뷔엔나의 그의 同僚 그리고 구라파와 南美의 同調者들로서 代表되는 독일-오지리의 文化-史學派는 文化形態(Kulturkreise)의 概念을 發展시켰다. 發想은 Foy와 Graebner¹¹⁾에 依하여 이루어 졌으나 概念을 發展시킨 것은 Graebner였다. 文化形態의 概念은 單純한 것이었다. 時空을 달리하는 옛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떠한 純粹한 文化와 이들 文化들이 널리 傳播되어 이루어진 文化들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起源의인 基本文化形態는 7乃至 8개가 있다고 하고 이들 순수한 文化는 서로 獨立의이며 內的으로는 各己 그 文化 나름의 統合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 文化의 發祥은 아마도 獨立의으로 始作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들 순수한 文化의 傳播는 다른 地域의 文化의 發展에 寄與하게 되었고, 이들의 傳播는 한 單位로서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Kulturkreise의 存在與否는 證明할수가 없다. 오직 史的 文化와 現代文化의 比較에서 推理했을 뿐이다. 다른 地域에 같은 文化特徵이 있다면 비록 地理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같은 物種의 傳播에 歸因했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다. 文化에 따라서 傳播의 物種이 여러個 찾아 낼수가 있고, 이들 物種은 때로는 섞이는 경우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思考는 몇개의 重要한 疑問이 있다. 卽 아득한 옛 文化에서 흘러 내려 오는 傳播의 物種을 오늘날에 와서도 찾아 낼수 있을 만큼 文化는 微微할 程度로 變化하는 것일까? 物種의 疑問은 한 環境的 條件下에서 이룩된 文化의 特徵體를 아무런 適應이나 修正이나 再解釋함이 없이 移植될수 있다는 것인가? 셋째로는 思想이나 宗教나 價值體制들도 物種의 疑問과 같이 아무런 修正이나 適應이나 再解釋함이 없이 移植시킬수 있다는 것인가?

文化地域의 製圖化나 이들 文化의 特徵들을 綜合分類하는 일을 美國에서 人類學研究에 오래동안 流行처럼 되어 왔다. Wissler¹²⁾는 이러한 研究傾向에 “期地域”(age area)이라는 概念을 導入하여 史的인 次元을 첨가 하였다. 이 概念은 起源的 文化의 特徵은 고루 四方

(10) Wilhelm Schmidt, *The Culture Historical Method of Anthropology*, trans. by S.A. Sieber (New York: Fortuny's, 1939).; A. Kroeber, *Cultural and Natural Areas of Native North America*, Univ. of Calif. Pub. in American Archae. and Ethnology, Vol. 38, 1939.

(11) A.L. Kroeber and C.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A Vantage Book, 1963). p. 313.

(12) Clark Wissler, *Man and Culture*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23).

으로 傳播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文化特徵이 오래된 것과 아직 比較的 어린것의 傳播樣相을 보면 오래된 特徵은 比較的 넓게 地理的으로 分布가 되어 있는데 反해서 比較的 좁은 地域에 分布되어 있는 것은 앞의 文化보다 年代的으로 後에 일어난 文化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ssler¹³⁾ 學派는 이러한 前提를 精巧히 再構成해 냈다. 文化史를 再構成하는 이러한 方法에는 分명한 制限點을 지니고 있다. 即 위에서 指摘된바 있는 疑問인데 文化的 特徵들이 四方面으로 傳播될수 있다는 것인가이다. 地理的인 要因과 보이지 않은 文化的인 障壁이 傳播의 速度와 方向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文化的 傳播過程을 보면 文化的 選擇的 受容特性으로 미루어 어떠한 文化特徵은 다른 文化特徵보다도 順坦하고 빠르게 전과된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受容過程에 있어서도 “期地域”(age area)의 概念을 再構成하기가 어려운 程度로 어떤 文化特徵의 原形은 그 形態나 機能이 달라져서 吸收되어 진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學派의 史的 研究는 보다 信賴롭기는 하지마는 傳播를 機械的인 過程으로 보는데 過誤를 犯하고 있다. 應用人類學은 相當히 傳播研究를 強調하여 왔다. 새로운 傾向은 傳播의 力動性分析에 일고 있다. 이러한 研究動向은 왜, 어떻게, 어떠한 與件下에서 革新이 傳播되는가를 究明하는데 쏠리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研究傾向은 새로운 文化要素를 受容 또는 拒否하는 過程에 對한 보다 綜合的이고, 보다 나은 理解를 圖謀하려고 하고 있다.

文化的 成長과 變化에 對한 理解는 史的인 觀照를 通하여 얻어 지고 있다. Redfield와 Singer¹⁴⁾는 그의 論文 “都市의 文化的 役割”에서 文化的 盛衰와 變容에 都市가 어떠한 役割을 했느냐에 對한 說明을 試圖하고 있다. 即 理論的인 原型으로서의 部族社會는 오랜 歷史와 同質性과 文盲으로 엮어진 統合된 地域社會로 特徵지워 질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社會는 오직 部族的인 紐帶가 있는 곳에서만이 이루어지며 都市에서는 이루어 질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 都市도 部族社會의 同質的 또는 正統的 變容과 異質的 變容이 가장 많이 일어난 社會로서 正統的 또는 同質的 變容은 求心的이고, 正統的인 傳統과 이에 연속되는 知識階級, 道德的 宗教的 生活에서 나온 規範과 規則, 發達된 經濟制度, 이러한 文化變容에의 順從性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異質的 또는 異端的 變容은 知的, 審美的, 經濟的, 歐治的 生活을 地域的인 道德規範에서 解放시켰으며, 一面으로는 個人的 動機를 자극하였고, 또 一面으로는 現在 改革이니, 發展이니 또는 設計된 變化이니 하는데에 指向되고 있는 革新的이고, 人道主義的 또는 汎宗教的 觀點이나 見解를 자아 내게 하였다고 했다.

Redfield와 Singer¹⁵⁾ 人間의 開化 또는 開明을 두가지의 假定的 形態인 一次的인 開明化

(13) C. Wissler, An Introduction to Social Anthropology (New York: Holt, 1929).

(14) R. Redfield and Milton Singer, “The Cultural Role of Cit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III, No. 1 1954.

(15) *Ibid.*

와 二次的인 開明化로 區分하고 있다. 一次的인 開明化는 中核的 文化테두리안에서 일어나며 이 中核的 文化는 土着文化로 發展變容하게 된다고 했다. 文明以前的 部族社會는 都會地와 연결되어진 農村社會로 變容된다고 했다. 二次的인 開明化는 文化가 서로 크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結果的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都市生活이 나타 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形態는 傳統文化와 갈등을 이루킬수 있다. 이러한 開明化는 새로운 類型의 사람들, 卽 코스모폴리탄的인 사람들과 인텔리겐차를 낳게 하고, 시골에는 周邊人을 만드려 낸다. 一次와 二次的인 開明化論에서 普偏妥當한 段階를 찾아 내지는 못하였지 마는 이들은 分明히 科學技術의 發達速度와 다른 文化와의 접촉의 幅과 強度에 달려 있다.

이러한 形態의 開明化가 어떠한 文化的인 變化나 結果를 가져 오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重要하다. 이미 앞에서 言及된것 처럼 一次的인 開明化는 聖書, 建築, 彫刻, 繪畫, 儀式등에 表現되어 있는 核心的 傳統文化의 出現을 보게 된다. 核心的 價値를 담고 있는 傳統文化는 道德的, 法的, 審美的, 그리고 다른 文化的 規範을 規定하고 評價하는데 그 根源이 되고 있다. 知識階層의 出現은 그것 自體대로 意義가 있다. 이런 범주에 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思考形態에 功獻하고 그것을 擴大시키는데 寄與하게 된다. 地域文化의 規範內에서 表現되고 統制되는 새로운 規則과 法律들이 出現하고, 경제면에서 資源의 生産과 分配에도 傳統文化가 갖는 道德的 規範에 依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一次的 開明에서는 政治的, 經濟的, 知性的, 審美的 活動은 傳統文化의 規範內에서 調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二次的 開明化는 地域的 土着文化와 一致하지 않은 心的 狀態를 惹起시킨다. 이러한 心的 狀態란 ① 새롭게 登場하는 技術社會의 秩序에 適切한 心理的 코센사스의 대두, ② 文化的으로 異質的 背景을 가진 集團들에 對한 共同意識의 發達, ③ 回想的 過去指向의 人間觀이 未來指向의 人間觀으로의 代置를 包含하고 있다.

一次的 開明化에서 볼수 있는 새롭게 出現한 秩序들의 여러 다른 面들은 모두 核心的 價値를 지닌 傳統文化의 規範에 依한 것이 었지마는 二次的 開明化에서는 이러한 規範의 影響을 받음이 없고, 拘束되지 않았기 때문에 自主的으로 急速하게 發達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只今까지 論議된 變化의 研究의 接近들은 주로 史的인 것이 었다. 計劃된 變化에 社會科學的 洞察의 適用과 관련하여 史的研究가 얼마나 妥當한가에 對해서는 直接的인 라기 보다는 間接的이라고 할수가 있다. 그러나 史的研究方法은 特定社會의 變化에 對해서 微視的 文化 接近을 하는데 보다 幅넓은 變化觀과 길잡이의 구실을 할수 있다고 본다.

II

古典的 進化主義와 文化傳播主義의 過剩에 對한 反作用으로 微視的 文化研究의 새로운

傾向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特히 英國의 人類學은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研究들은 特殊한 社會의 構造에 關心을 나타 냈으며 構造의 다른 要素의 機能에 조심스런 分析을 試圖하였다. 始作 부터 그들은 모든 歷史를 拒否하여 歷史를 再構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破門宣告와도 같았다. 최근에 와서 人類學과 歷史學의 關係가 好轉되곤 있으나 事實에 더하지 않은 史의 構成은 繼續 拒否되고 있다.

機能主義는 全體 文化의 關聯속에 있는 한 文化範圍內의 各單位部分에 關心을 갖는 理論的 方法學的 接近이라고 할수 있다. 機能分析은 비록 그들이 分명한 關係를 나타내지는 않고, 各各 行動形態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도 根本的으로는 聯關되며 全體社會體制에서 存在意義를 가지고 있음을 證明하려고 한다. Malinowski¹⁶⁾는 어떠한 文化要素가 어떠한 機能의 欲求를 充足시키고 있는가에 對한 機能의인 說明을 提示하고 있다. 그는 欲求의 類型 分類를 發展시켰으며, 그의 實證的 資料의 分析으로 이러한 欲求들이 文化의 多様な 要素들에 의해 어떻게 充足되어 지나를 보여 주려고 했다. 그의 生物學的 心理學的 強調는 社會生活에 局限시키는것 보다는 人間의 모든 領域의 生活의 必須條件임을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Radcliffe-Brown¹⁷⁾은 社會生活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Radcliffe-Brown에 依하면 모든 社會構造의 主된 機能은 社會結束을 維持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分析은 各社會의 機構와 그 構成員들이 社會結束과 社會存續을 위해 어떻게 功獻하고 있나를 밝히려 하였다. 社會와 文化에 對한 이러한 接近에 있어서는 安定性, 均衡性, 統合性은 重要한 概念이 될수 밖에 없다. 變化는 “文化接觸”에 依하여 일어나는 苦痛스런 現象이라고 할수 있다. 歷史적으로 봐온바 있는 帝國主義의 팽창이나 征服, 商人의 무역, 宗教의 傳道事業, 醫師의 醫術을 通하여 주어진 影響은 새로운 欲求의 出現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欲求들에 文化와 社會制度는 어떠한 反應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따라서 變化는 不可避한 結果가 되었다.

이러한 觀點에서 社會에 對한 길고 치밀한 分析은 비록 이러한 接近이 科學의 概念的 發達에 里程碑가 된다 하여도 變化를 說明하려 할때 皮相의 일수 밖에 없다는 點을 指摘할수가 있다. 變化를 일으키는 要因들을 보다 깊이 分析할 必要가 있으며, 모든 變化를 外部的 影響만으로만 說明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모든 社會構造들은 그 自體內에 反對와 갈등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社會的 統合이란 現實에서는 完全할수가 없다. 모든 社會는 오직 不安定한 均衡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Gluckman¹⁸⁾은 社會의 本質的 要

(16) Bronislaw Malinowski,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and Other Essays*(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44), and Malinowski, *The Dynamics of Cultural Chang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5).

(17) A.R. Radcliff-Brown,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London: Cohen and West, 1952).

(18) Max Gluckman, *Custom and Conflict in Africa*(Oxford: Basil Blackwell, 1965), Gluckman, *Politics, Law and Ritual in Tribal Society*(Oxford: Blackwell, 1965).

素로서 갈등을 認定하고 있다.

Godfrey Wilson과 Monica Wilson¹⁹⁾은 “對立”이라는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理論的인 功獻을 하였다. 이들은 두가지의 對立 卽 通常的 對立과 極端的 對立을 區分하였다. 比較的 잘 統合된 社會라 할지라도 通常的 對立은 存在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社會制度라 하더라도 利益關係에서 오는 갈등과 權力競爭을 위한 충돌은 완전히 除去할수 없기 때문이다. 社會構造는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解消하는 自體內的 機制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極端的인 對立은 다른 秩序의 問題를 惹起시키게 된다. Wilson²⁰⁾에 依하면 極端的 對立은 社會活動이 相異하나 關聯되어 있는 領域에서 同一人이 두 곳에서 同時에 關聯되어 있을 때에 일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類의 갈등은 構造的인 修正을 必要로 한다. 變化分析에 있어 極端的 對立이 存在하는 領域을 把握하는 일이 緊要하다.

Firth²¹⁾는 權造的 變化와 組織의 變化를 的의있게 區分하였다. 그에 依하면 社會構造란 期待를 確固하게 하고, 未來의 類似한 經驗들에 關하여 過去經驗의 妥當性을 確認하려는 關係라고 하였다. 社會構造는 社會構成員들에게 믿을수 있는 行動指針을 마련해 주며 또한 行動의 限界도 가르쳐 준다. 다른 한편, 社會組織은 選擇과 決定行爲에 依한 社會關係의 秩序의 體系化를 뜻한다고 하였다. 再言하면 社會組織은 社會構造가 時空間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決定하며 또한 어떠한 行動의 選擇이 社會的構造에 依하여 容認된 可能性의 範圍內에서 行해 질수 있느냐를 말해 준다고 했다. 構造的 變化와 組織의 變化의 差異는 흔히는 相當히 있다. 組織의 變化는 構造的 變化를 促進시키거나 阻止시키기도 한다.

Leach²²⁾는 機能的 統合, 社會的 結束, 構造的 均衡등의 概念을 主軸으로 하는 社會模型을 英國의 社會人類學者들의 功獻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概念들은 Pareto나 Weber에서 보다는 Durkheim에서 찾아 냈다고 하였다. 이들 英國의 社會人類學者들은 急速한 社會變化를 隨伴하게 하는 社會的 分裂과 內部葛藤의 징후를 나타내는 社會에 對하여 그들의 社會模型의 妥當性을 評價받는데 當惑을 나타내고 있다. Leach는 社會均衡模型은 많은 修正이 要求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어떤 社會도 安定을 向한 뚜렷한 傾向을 갖고 있지 않다. 社會人類學者들이 記述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社會現實의 모델 또는 體制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對한 人類學者들의 見解이다. 卽 다른 部分들이 어떻게 結合되고, 어떻게 秩序整然히 統合된 全體를 이룩하는 가를 그려 보는것이라 하겠다. 이와는 反對로 社會現實自體는 상호모순으로 充滿되어 있고, 秩序整然한 統合된 全體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다는 것이다. 變化의 過程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現實的인 問題가 있다는 것을 認定함

(19) G. Wilson and Monica Wilson, *The Analysis of Social Chang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5).

(20) *Ibid.*

(21) Raymond Firth, *Elements of Social Organization*(London: Watta, 1951).

(22) E.R. Leach,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London: G. Bell, 1954).

이 要求된다. 한 個人은 동시에 몇개의 다른 社會體制에서 지위를 갖고 있다. 體制 自體는 사람들에게 여러 선택을 길을 터 준다. 手段과 方法은 사람들의 利害關係에 따라 조종되고 社會上昇의 手段으로 쓰여 진다. 社會變化는 個人들의 集合體가 社會 그 自體의 構造를 改造할 때 일어 난다고 하였다.

Gluckman²³⁾은 均衡模型은 꼭 버려야 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均衡이란 混亂後에 以前의 狀態로 돌아가려는 體制의 傾向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均衡은 外的 內的 混亂의 可能性을 排除하지는 못한다. 기실 體制의 部分들의 變化와 混亂은 이러한 體制에 원래 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極端的인 變化에 있어서 그 變化를 正當化하는 獨斷을 가지고 出現하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機關들은 적어도 短命할수 밖에 없는 協力的 調和와 잠정적인 均衡을 이룩하게 된다. 이러한 變化受容이 不完全하는 경우에는 人間關係의 變質과 權力配分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人間關係의 出現을 招來하게 된다. 이것도 얼마동안은 또 하나의 一時的 均衡을 維持하게 된다. 人類學者들은 새것이 옛것에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가와 어떻게 새것과 옛것 相互間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고져 한다. 옛것은 언제나 새것으로 代置되지 않는다. 이전의 “옛것”은 새롭게 出現하는 形態와 繼續 나란히 生存하여 存續되는 것을 본다.

時間적으로 다른 時點에서의 社會構造研究 即 그 變化의 事前과 變化의 事後研究는 變化過程의 최종결과를 말하고, 그들은 變化를 過程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點은 現代社會人類學에서 強力히 擡頭되고 있는 過程的 研究의 새로운 傾向에 依하여 修正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研究傾向은 임의적으로 選定된 두 時間사이에 介在된 變化의 過程을 研究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研究는 個個人的 選擇에 영향주는 要因들의 作用을 理解하려 하며, 관련된 事例를 通해서 採擇의 過程을 理解하려 한다. 過程에 強調를 둔 狀況分析은 急速한 變化過程을 繼續하는 不安定한 社會研究에 가장 適合하다고 하겠다. 多樣한 社會狀況속에서 規範과 실제 行動의 研究및 個個人的 行動을 일정한 期間동안 추적하는 광범위한 方法論의 使用은 社會人類學者가 變化受容 또는 採擇의 過程을 理解하고 變化에 대한 洞察의 理解를 얻는데 相當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變化를 理解하는데 有望한 接近法이라고 할수 있다.

III

人類學에 있어서 文化變化의 過程에 對한 思考와 研究는 매우 豊富하고 多樣化되어서 간단한 論評이나 要約을 한다고 해도 相當한 부피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筆者는 革新과 革新傳播를 포괄적으로 取扱하고 있는 하나의 接近法에 對해서만 살펴 보기로 하였다. 이 接近法은 變合理論에 相當한 功獻을 할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예전의 人類學者들에 依

(23) Gluckman, *Op. Cit.*

해 試圖된것 보다도 發明(革新과 創案)과 傳播의 過程에 對한 더 深層의인 分析을 試圖하는 것이 現代 人類學者들의 特徵이다.

文化變化의 基礎로서의 革新에 對한 Barnett²⁴⁾의 理論은 많은 注目을 받은 文化가 어떠한 時點에서는 安定되게 보일지 몰라도 기실은 어떠한 革新에 依해서 알게, 모르게 變化의 過程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때 革新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수가 있겠다. 卽 革新이란 既存形態와는 質的으로 다른 새로운 思考, 行動, 事物 등이라고 定義할수 있다. 革新이란 文化의 部分에 어떠한 것을 加하거나 減하거나 하는데서 오는 結果는 아니다. 革新은 代置의 過程이다라고 할수 있다. 變化의 核心은 새로운 形態가 出現할수 있도록 部分을 再構成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革新은 單純하거나 複雜한 社會, 또는 發達된 社會나 發達되지 않은 모든 社會에서 다 일어난다. 그러나 각기 가지고 있는 文化的 背景은 革新을 順調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條件을 지니고 있다. Barnett²⁵⁾에 依에 提示된 變化와 革新을 促進케 하는 文化的 決定要因은 다음과 같다.

1. 文化的 內容의 規模와 複合性이다: 이것은 革新이 作用할 限界를 설정한다. 規模가 크고 內容이 複合성을 지니면 比較的 넓은 規模의 새로운 結合을 허용하게 한다.

2. 知識과 構想(Ideas)의 蓄積과 集中: 한 社會에서의 革新의 可能性은 어떤 領域과 內容에 對해서 많은 사람들이 知識과 構想이 蓄積되고 集中되어 있을 때에 일어나기 쉽다. 知識과 構想의 蓄積과 集中이 크면 클수록 革新취향의 可能性은 커진다.

3. 協同的 努力: 이것은 여러 사람의 知識과 構想을 活用하는데 寄與한다. 또한 이러한 協同的 努力은 새로운 構想을 자극하고 고무하게 된다.

4. 對立的 代案의 共存: 서로 葛藤되는 慣習, 構想과 思考, 價値등의 共存은 흔히는 革新으로 유도된다.

5. 人口: 協同參與하는 人口의 수, 傳播와 模倣에 參與하는 人口의 수가 커지고 蓄積이 되면 革新은 그 速度를 빨리 할수가 있다.

6. 變化에의 期待: 革新은 變化에의 期待 雰圍氣여하에 따라 번창하기도 하고 制限되기도 한다. 安定되고 變化되지 않은 질서속에서는 革新의 數나 範圍는 相當히 制限된다.

7. 權威에의 依存: 革新의 可能性은 個人主義의 許用程度에 많이 달려 있다. 權威에의 依存도가 강하면 새로운 構想을 統制하게 된다.

8. 競爭: 能力과 業績에 따라서 報償이 주어 질때 革新을 향한 강력한 誘因이 된다.

9. 基本欲求의 剝奪: 欲求의 抑制은 흔히 革新을 유발한다. 特히 한 集團이 익숙되어 있는 어떤 欲求가 剝奪當했을 때에는 그러하다.

(24) H.G. Barnett, *Innovation: The Basis of Cultural Change*(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3).

(25) *Ibid.*

10. 相互關聯된 主要骨格的 要素의 修正: 文化의 한 部分 또는 몇개의 部分에서의 어떤 變化는 文化의 다른 部分에 부수적 또는 期待하지 않았던 變化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있다.

欲求是 革新과 革新의 傳播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여 結局 社會變化를 招來하게 한다. 이러한 關係에서 欲求是 어떠한 자극을 일으키게 하는 精神的 情緒的인 存在라고 할수 있다. 欲求是 先天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反復되는 자극의 압력하에 에너지의 무성형의 蓄積으로 부터 綜合화된 것이며 제조된 것이라고 할수가 있다. Barnett²⁶⁾는 欲求를 세계의 類型과 많은 類型으로 區分했다. 即:

1. 自我欲求: 이 범주 아래에 세계의 下位欲求를 提示하고 있다.
 - 가. 認定및 稱讚欲求(Credit Wants): 새로운 일을 始作하고 이리켜 結果적으로 그 일의 創始者로서의 記錄을 내고 많은 사람에게서 認定을 받으려고 努力하게 하는 欲求,
 - 나. 周邊의 昇化欲求(Peripheral Sublimal Wants): 不安, 興奮, 精神的 壓迫을 증가시키는 근육과 精神的 緊張을 解消하려고 하는 欲求,
 - 다. 中樞의 昇化欲求(Central Sublimal Wants): 사람은 感覺能을 通하여 自我觀을 形成하고자 한다. 이러한 欲求是 自我概念을 形成케 하고, 自我實現, 自我主張, 自我維持의 手段이 되게 한다.
2. 從屬的 欲求: 이 범주의 欲求是 다른 어떤 欲求에 依해 先行되며 條件化되며 다른 무엇을 願하게 하는 欲求이다. 이 欲求들은 다른 어떤 欲求와 연결되며, 獨立的으로는 成就될수는 없다. 從屬的 欲求의 세가지 類型은 다음과 같다.
 - 가. 收斂的 欲求(Convergent Wants): 다른 根源을 가진 두개 또는 그 以上の 欲求들이 하나의 行動에 集約되어 革新的인 結果를 가져오게 한다. 이들은 서로 強化하거나 反對하여 두과정은 結果적으로 革新을 일으키게 한다.
 - 나. 補償的 欲求(Compensatory Wants): 사람은 自己가 願하는 것의 成就가 막히면은 다른 것으로 代置하여 補償적으로 成就하고자 하는 欲求이다. 이것은 훈히는 우회적 또는 直接的 공격을 유발하게 한다.
 - 다. 便乘的 欲求(Entrained Wants): 이것은 根源的 欲求에 必然적으로 따르는 부수적 욕구형태를 말한다.
3. 自意的 欲求(Voluntary Wants): 이 欲求是 다른 欲求와 마찬가지로 불만족과 不便에서 나온다. 그러나 위에서 論議된 欲求와는 달리 이 欲求들은 持續的 成就나 그것의 조작을 방해하는 상황에 對한 不滿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容認된 形式 그 自體에 對한 不滿으로부터 나온다. 自意的 欲求에는 네가지 類型이 있다. 即, (가) 創意的 欲求, (나) 解消와 逃避欲求, (다) 代案的 欲求, (라) 代行的 欲求이다.

(26) *Ibid.*

創意的 欲求에서 기본 충동은 創意 그 自體를 성취하려는 데 있다. 두번째 欲求는 慣用的인 手段, 目的, 條件등을 회피 하려는 欲求이다. 代案的 欲求는 物量的 變動을 希求하는데서 나오며 時間, 勞動, 金錢 또는 다른 資源을 가감시키려는 欲望에 의해 동기지워진다고 하였다. 代行的 欲求란 發明家와도 같이 다른 사람의 欲求를 代身代行하려는 욕구라고 하고 있다.

革新의 受容과 拒否는 세가지 主要한 要因에 달려 있다. 첫째는 누가 變化의 主唱者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또한 누가 保守主義의 主唱者인가 하는 質問도 포함된다. 둘째로는 革新 그 自體의 性格이나 特性을 究明해야 한다. 셋째로는 잠재적 受容者의 特性이 檢討되어야 한다. 어떤 革新은 主唱者가 없으 수가 있다. 錯誤와 個人的인 기벽이 어떤 主唱者도 없이 革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革新은 그 主唱者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主唱者들은 어떤 集團內에 있는 경우도 있고 集團外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革新을 위한 主唱者가 있는가 하면 保守를 위한 主唱者도 있다. 革新이든 保守이든 間에 그 主唱의 効果性은 主唱者의 資産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의해 영향 받는다. 即 主唱者의 資産이라고 하면 ① 主唱者의 權威와 名聲度, ② 主唱者의 性格, ③ 主唱者와 潛在的 受容者와의 人間的인 關係, ④ 主唱者와 多數派와의 제휴관계 등이다.

좋은 革新主唱者는 나쁜 革新을 增進시키지 못한다. 萬若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成功은 甚히 制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革新 그 自體의 質을 아는 것이 必要하다. 이와 關聯하여 다음 몇가지 質問을 重要하다고 하겠다.

1. 그 革新策은 當面하고 있는 現實의 不適切性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사람들은 그 革新策에 어떠한 長點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3. 傳播하려고 하는 그 革新策은 適用하고저 하는 그 文化의 規範과 葛藤을 이르지 않은가?
4. 사람들은 그 革新策을 受容할만한 資源을 갖고 있는가?
5. 사람들은 그 革新策속에 要求되고 있는 知識과 方法과 技術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인가?
6. 그 革新策을 받아 들임으로써 얻어지는 名聲, 經濟性과 能率性등이 그 革新策을 받아 들임으로써 얻어지는 損害를 充分히 補償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인가? 이다.

潛在的 受容者의 特性은 相當한 程度로 特定한 革新策의 運命에 영향을 주게 된다. 一般的으로 傳統의 方法이나 現在 쓰고 있는 方法에 不滿을 느끼지 않은 限은 革新을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個人에 따라서는 不滿足이 習慣化된 態度로 굳어져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代置하려는 것에 不滿足한 것과 같이 革新策에도 꼭 같이 不滿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람들은 좋은 受容者가 되지 못한다. 潛在的 受容者의 確保는 어느 程度 不滿을 가지고 있으나 너무 깊숙히 스며 들지 않은 周邊人들이 더욱 좋다.

Barnett²⁷⁾는 受容과 관련된 네가지 類型을 區分했다.

1. 反對者： 이들은 公公然히 또는 은밀히 그들 集團의 慣行에 同一視하지 않을려는 사람들이다.

2. 無觀心者： 이러한 사람들은 革新을 受容할 可能性이 많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들이 屬해 있는 集團의 慣習이나 規範에 盲信하지 않기 때문이다.

3. 失望者： 이 범주에 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 文化의 어떤 점에 積極的인 參與를 하다가 後에 失望을 經驗하는 사람들이다.

4. 憤慨者： 이 범주에 屬한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높은 價値화된 目標을 쉽게 얻는 幸運을 가진 少數속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

Barnett²⁸⁾의 革新의 過程과 傳播의 概念化는 從來 學者에 依해 等閑視되어 오던 基本的인 問題에 새로운 討論을 提起한것도 그의 貢獻이거니와 傳播理論을 세련화시킨것도 그의 貢獻이라고 할수가 있다. 또한 人類學的 理論의 發展은 傳播過程을 理解하는데 鍵잡이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傳播의 類型, 即 戰略的, 非戰略的, 傳播, 刺戟傳播, 計劃的, 非計劃的 傳播, 積極的 傳播, 消極的 傳播등이 區別되고 各類型에 따른 過程과 問題가 分析된바 있다.

IV

지난 20餘年間 人類學者들은 經濟發展과 國家發展의 問題에 銳利한 關心을 表示해 왔다. 이들은 이 分野의 問題를 길게 파헤치고 도전적인 假說과 인상적인 分析的 洞察力을 과시했다. 筆者는 주로 Manning Nash²⁹⁾와 Clifford Geertz³⁰⁾의 業績을 參考로 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들은 現代의 人類學者들이 가질만한 學問的 關心事와 이러한 關心之事が 研究되었을 時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對해서 쓰고 있다.

社會는 體制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는 假定은 많은 社會科學者들로 하여금 産業化過程에 參與한다 함은 經濟的 下位體制뿐만 아니고 社會的, 政治的, 宗教的, 文化的, 教育的 下位體制의 參與가 不可避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Nash의 Guatemalan Community 研究³¹⁾는 이러한 假定과는 正反對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 研究는 下位體制의 相互聯關性보다는 自律性을 強調하는 獨立的 下位體制化(compartmentalization) 過程을 主張하고 있다. Nash의 研究에 依하면 産業化過程에 參與한다고 해서 그들의 非經濟的 領

(27) *Ibid.*

(28) *Ibid.*

(29) M. Nash, *Machine Age Maya*, American Anthropologist Memoir, No. 87, 1958.

(30) C. Geertz, *Peddlers and Prince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3), and Geertz,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e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New States," in Clifford Geertz, 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Glenco, Ill.: The Free Press, 1963).

(31) Nash, *Op. Cit.*

域의 活動에 어떤 中斷이나 支障을 招來하지는 않은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生活의 下位體制 即 產業的, 非產業的 領域의 生活을 兩立시킬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各領域의 Compartment는 그 自體의 規則과 規定을 갖고 있고, 그 自體의 賞과 罰의 體制를 갖고 있다고 했다. 工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傳統的인 社會生活에 參與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또 反對로 傳統的 社會體制에 參與하고 있다고 해서 產業領域의 活動에 어떠한 萎縮을 가져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下位體制가 相互聯關的³²⁾이나, 獨立的이나에 對한 問題는 여러 文化的인 背景에서 充分히 研究되어야 하며, 果然 이러한 下位體制는 獨立的이고 同等한 것일까? 한 下位體制가 開放體制로 可能하고, 다른 한 下位體制는 폐쇄체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短長期的 眼目에서 볼때 어떠한 結果를 가져 올것인가?

Geertz³³⁾는 部族의 忠誠心이 政治的統合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研究한바 있다. 政治的 獨立은 部族의 集團사이의 葛藤을 惡化시키고 더욱 세게 하고, 이들은 壓力集團을 形成하고 政黨을 形成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巨大한 變化가 따라 오게 된다는 것이다. 傳統的인 紐帶를 바탕으로 하여 形成된 集團들은 그 規模가 적고 地域의 이다. 그러나 새로운 與件下에서는 部族的, 人種的, 宗教的, 言語的 또는 다른 既存해 오던 紐帶들이 더욱 擴大되어 國家水準의 블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擴大形成은 國家單位의 政治問題와 政治制度를 다루게 됨으로 해서 擴大形成되기 以前의 部族集團의 關係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擴大形成이 分離主義者의 差異나 利害關係를 擴大增進시킨다면 國家建設에 逆機能을 發揮하게 된다는 것이다. 反面에 이와 같은 葛藤들을 政治體制內에서 適應과 競爭의 過程으로 돌려 질때 그것은 실제로 國家建設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部族의 忠誠心과 現代化는 서로 必然的으로 相反되는 것은 아니다. 部族의 忠誠心을 조심스럽게 調整함으로써 現代化를 지탱할 수가 있다고 했다. 기실 이러한 部族의 忠誠心을 빨리 그리고 決定的으로 除去하는 方法들이 밝혀지지 않은 限은 더불어 共存하는 길을 찾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V

應用人類學의 初期에는 文化接觸과 文化傳授, 文化移植에 有用한 知識을 提供해 주었다. 限定된 範圍의 研究이긴 하지만 이 研究들은 비록 많은 妥當한 理論이나 結論들을 提示는 못하였지 마는 文化的 變化의 力動性에 對해서 우리의 理解를 크게 增進시켜 주었다.

Malinowski³⁴⁾의 한때 有名했던 三間比較法(Three Column Approach) 即 二間에는 各各 接觸하게 되는 原住民文化와 西歐文化를 놓고 比較하고, 第三間에는 두 文化的 接觸의 結

(32) 金永植, “體制的 側面에서 본 教育의 革新”, 金榮鎬 外著, 教育革新 普及에 관한 理論的 基礎 (서울: 韓國教育開發院刊, 1973), pp. 59-80.

(33) Geertz, *Op. Cit.*

(34) Malinowski, *Op. Cit.*

果로 해서 나타난 第三의 文化現實을 나타내는 狀況研究에 分析的 道具를 마련하여 功獻한 바 컸었다. “部族純潔”의 保存과 그들의 “文化的 均衡” 維持에 關心을 두었던 應用人類學은 文化的 混亂을 極少化시키기 위하여 調節된 文化的 接觸을 提議한바 있다. 個個人의 人類學者로서는 部族問題의 解決을 위해 注目할만한 功獻을 하였지만 應用人類學은 一般的으로는 汎文化的 妥當성을 지닌 理論樹立과 提示에는 弱했다고 볼수가 있다. 그러나 應用人類學은 지난 20餘年間 새로운 進向을 했다. 그들은 더 以上 新奇한 部族集團과 新奇한 文化에만 關心을 限定시키지는 않았다. 이제는 經濟的 發展과 文化的 變化에 順調롭고 빠른 增進에 關心을 돌리고 있다. 計劃된 文化領域에서의 充實한 事例研究은 社會的 文化的 要因의 複合的 相互作用을 밝혀 주는 價値있는 진단적 道具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人類學的 研究들은 發展的 計劃에 공헌하고 있으며 價値있는 基礎知識을 社會發展에 功獻하고 있음은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人類學的 知識과 概念은 變化를 計劃하고 遂行하는 사람들의 教育에 有用하며, 人類學의 方法은 經濟와 社會發展政策의 評價에서는 勿論 問題狀況의 진단적 연구에도 有用하다는 點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應用人類學은 文化에 對한 모든 解答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有用한 概念과 知識과 方法과 洞察을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에 마련해 주고 있다. 特히 文化的 側面에서 보는 體制變化의 理論과 方法은 政治, 經濟, 宗教, 社會, 教育 등의 領域의 變化와 革新研究에 礎石的 功獻을 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金永植, “教職의 變化·革新을 위한 理論的 考察과 그 定立을 위한 豫備的 研究(I), 教育學研究, 14권 1호, 한국교육학회, 1976. 4.
- 金永植, 體制의 側面에서 본 教育의 革新, “教育革新·普及에 관한 理論的基礎,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3.
- Barnett, H.G. Innovation: The Basis of Cultural Chan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3.
- Childe, V. Gordon. What Happened in History. Harmonds 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42.
- Childe, V. Gordon. “Archaeological Ages as Technological Stages,” J. of Anthro. Inst. 1944, 74:1-19.
- Firth, Raymond. Elements of Social Organization. London: Watts. 1951.
- Geertz, Clifford. Peddlers and Pri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Geertz, C. “The Inter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in New States,” in Clifford Geertz, 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Glenco, Illinois:

- The Free Press, 1963.
- Gluckman Max. Custom and Conflict in Africa. Oxford: Basil Blackwell. 1965.
- Gluckman Max. Politics, Law and Ritual in Tribal Society. Oxford: Blackwell. 1965.
- Kluckhohn, C. Mirror For Man. Greenwich, Conn.: Fawcett Publications, Inc., 1928.
- Kroeber A.L. and C.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Vantage Books. 1963.
- Leach, E.R.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London: Bell. 1954.
- Linton, Ralph. The Tree of Culture. New York: Alfred A. Knopf. 1955.
- Malinowski, Bronislaw.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and Other Essay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55.
- Malinowski, B.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5.
- Morgan H. Ancient City.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 Nash, M. Machine Age Maya. American Anthropologists Memoir, No. 87. 1958.
- Perry, W.J. The Children of the Sun. London: Methuen and Company. 1923.
- Radcliffe-Brown, A.R. Structure and Function in Primitive Society. London: Chen and West. 1952.
- Redfield, R. and M. Singer. "Cultural Role of Cit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III. No. 1. 1954.
- Schmidt Wilhelm. The Culture Historical Method of Anthropology. trans. by S. A. Siebner. New York: Fortuny's. 1939.
- Smith, G.E. In the Beginning: The Origin of Civilization. New York: Morrow, 1928.
- Steward, Julian. Theory of Culture Change. The Methodology of Multilinear Evolu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 Steward, G.E. "Cultural Evolution," Scientific American, 1959, 194:69-80.
- White, Leslie. The Science of Culture. New York: Farrar, Strauss. 1949.
- White, Leslie. The Evolution of Cultur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9.
- Wilson G. and Monica Wilson. The Analysis of Soci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5.
- Wissler, Clark. Man and Culture. New York: Thos. Y. Crowell Company. 1923.
- Wissler, Clark. An Introduction to Social Anthropology. New York: Holt, 1929.